

發願者階層을 통해 본 朝鮮 前期 梵鍾의 樣式

이 광 배*

- I. 머리말
- II. 朝鮮 前期 梵鍾의 現況
- III. 朝鮮 前期 梵鍾의 發願과 製作
- IV. 朝鮮 前期 梵鍾의 樣式 變遷
- V. 맺음말

I. 머리말

본고에서는 15세기 왕실발원 범종과 16세기 민간발원의 범종들을 통해 朝鮮 前期 범종의 양식 변천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기존의 조선 전기 범종연구는 15세기 범종에서 보이는 중국종 요소의 수용 관계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16세기 범종까지 포함한 이 고찰을 통하여 조선 전기 범종의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폭넓은 양식 규명을 시도하고자 한다. 조선 전기 범종의 현황에서 15세기에는 왕실발원 범종이 많은데 이는 당시 많은 왕실발원의 중창 혹은

* 동국대학교박물관 전임연구원

¹ 본 연구에서는 조선 전기 범종의 현황과 양식 등을 고려하여, 조선 전기를 조선개국사기(1392년)부터 1600년까지인 15, 16세기로 규정하였다.

개창 불사와 동시에 범종이 제작된 것에 기인한다. 16세기 범종의 발원자 계층은 민간이 주를 이루는데 이미 16세기에는 유교적 지배질서가 고착화 된 상황에서 범종의 제작에 왕실이 전면에서 나서서 발원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15세기 왕실발원의 대형 범종의 경우 중국종의 요소를 수용하는데, 그 원인을 元의 영향, 장인세력의 약화, 明과의 교섭관계 등에서 살피고자한다. 더불어 중국종의 요소 수용이 일방적 모방이 아닌 전통 한국범종의 조형성 아래에서 자국화 되어 표현되었다는 점을 작품 통해 새롭게 밝히고자 한다. 특히 15세기 왕실발원 범종은 조선왕조의 의례와 규범이 체계화 되던 시점과 맞물려 왕실, 관료, 승려, 장인집단 등이 체계적으로 참여하였음을 명문과 사료를 통해 규명할 것이다. 또한 범종의 조형에도 당시 觀音信仰의 성행을 반영하고 있음을 범종 표면을 장엄한 문양의 상징성을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16세기 민간발원의 범종은 기존의 15세기 왕실발원 범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약한 장인세력, 경제적 지원 등으로 인하여 중소형의 작은 크기이다. 이 시기 범종은 기본적으로 전통 범종의 양식을 따르면서 15세기 수용된 중국종의 요소도 보이는데, 그 외래요소의 자국화 경향 역시 15세기와 마찬가지로 뚜렷이 엿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조선 전기 범종에 대한 인식이 중국종의 영향관계에만 편중되어 있는 것에 대해 과연 이 시기 범종의 조형에서 전통의 계승은 어디에서 엿볼 수 있는가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15, 16세기라는 분리된 범종의 양식 규정이 아닌 조선 전기 전체에서 범종의 조형성을 지배한 표현의지와 신앙에 대해 폭넓은 시각으로 접근했음을 강조하고 싶다.

II. 朝鮮 前期 梵鍾의 現況

조선 전기 범종중 15세기 범종은 〈홍천사종(1462년)〉(도1) 등 9점이 있으며, 16세기 범종으로는 〈태안사종(1581년)〉(도2), 〈갑사종(1584년)〉 등을 포함하여 6점이 현존한다. 전체적으로 〈낙산사종(1469년)〉의 경우처럼 소실되었지만 기존의 조사 자료들로 접근할 수 있는 범종을 포함하여 총 15점에 이르며, 중대형의 종외에도 소형의 범종들로 〈봉은사종(1392년)〉, 〈정통14년명종(正統14年-1449년)〉, 〈수종사종(1469년)〉 등의 범종들도 현존한다(표1).

조선 초 왕실발원 범종 이전에 朝鍾의 개념으로 제작된 〈운종가종(1398년)〉, 〈돈화문종(1413년)〉, 〈광화문종(1458년)〉 등의 종들은 비록 현존하지 않지만 실록의 기록들을 통해 15



도1 홍천사종(1462년), 높이 282cm,
서울시 정동 덕수궁



도2 태안사종(1581년), 높이 96.5cm,
전남 곡성군 태안사

세기 중반 이전의 활발한 주종상황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조종들의 주종기술 축적으로 인해 현존하는 15세기 후반의 왕실발원 범종의 주조가 가능했던 것으로 사료되며, 고려 말 단절되었던 대형종의 주조가 조선개국과 함께 활발히 진행되었다는 사실 또한 알 수 있는 부분으로 조종의 주성 기록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당시 조종의 주성에 참여한 관료들이 중국에 자주 왕래한 사실들은 조선 전기 왕실발원 범종에 중국종의 요소 수용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본다.²

조선 전기 범종의 전체적인 현황과 분포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15세기 왕실발원 범종은 서울·경기권을 중심으로 왕실과 관련이 많은 사찰에 주로 분포하고, 16세기 민간발원 범종의 경우 지방사찰에 많이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15세기 왕실의 원찰 혹은 능침사의 성격을 갖는 사찰의 중창 및 개창 과정에서 범종을 주성한 경우가 많고, 16세기 범종은 지방사찰에서 당시 여러 가지 경위로 소실된 범종을 민간 혹은 사찰발원에 의해 제작된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² 周旻美, 「朝鮮 前期 王室發願鐘의 研究」, 『東洋學』 42(2007), pp. 233-235. 참조.

표 1 조선 전기 범종 현황

명칭	소재지	구경 및 전고 (cm)	비고
奉恩寺鍾 (1392년)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15 봉은사	49.8 × 60.2	
正統 ¹⁴ 年銘鍾 (1449년)	日本 東京國立博物館	29.5	
興天寺鍾 (1462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동 1번지 덕수궁	171.2 × 282	보물 1460호
普信閣鍾 (1468년)	국립중앙박물관	222.7 × 364.7	보물 2호
洛山寺鍾 (1469년)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 오봉산 낙산사	98.3 × 154	소실(2005년 화재)
水鍾寺鍾 (1469년)	국립중앙박물관	37.5 × 48.5	
奉先寺鍾 (1469년)	경기도 남양주시 진전읍 부평리 운악산 봉선사	154 × 235.6	보물 397호
海印寺弘治四年銘鍾 (1491년)	경상남도 함천군 가야면 치안리 가야산 해인사	57 × 84.8	보물 1253호
楡岾寺鍾 (15세기 말)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국립춘천박물관	46 × 67	
白蓮寺鍾 (1569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백련산 백련사	57.4 × 63.3	
安靜寺鍾 (1580년)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벽발산 안정사	71 × 115.8	
泰安寺鍾 (1581년)	전라남도 곡성군 죽곡면 원달리 동리산 태인사	65.7 × 96.5	보물 1349호
廣興寺鍾 (1583년)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	41 × 60.5	
甲寺鍾 (1584년)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증장리 계룡산 갑사	91.2 × 128.5	보물 478호
花巖寺鍾 (16세기 말)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 가천리 불명산 화암사	70.2 × 108.3	

조선 전기 범종이 고려 및 조선 후기의 범종 현황에 비해 소수인 것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우선 당시 통일신라와 고려시대를 거치면서 제작된 많은 수의 범종이 각 사찰에 이미 배치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범종의 특성상 전각 내 의식용 소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찰의 중루 혹은 종각에 걸려 타종하는 것으로 예배의 성격이 강한 佛畫 혹은 佛象의 경우와 달리, 그 발원에 있어 다수의 제작이 필요치 않으며 불교공예품으로서 기능적인 면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15세기 왕실발원의 몇몇 사찰의 건립과 중창과정에서 새로운 범종의 필요성으로 제작된 범종이 현존하는 15세기 범종의 主를 이루고 있는

3 현재 현황이 파악된 고려시대 범종은 160여 점 정도이며, 조선 후기 범종은 130여 점에 달한다. 廉永夏, 『韓國의 鍾』(서울대학교출판부, 1991); 金禧庚, 『增補韓國梵鍾目錄』(韓國梵鍾硏究會, 1994); 崔應天, 「日本에 있는 韓國梵鍾의 綜合的 考察」, 『동양미술사학』 8(2007. 6) 참조

것이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임진왜란(壬辰倭亂 1592-1598년)의 영향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당시 전통적으로 전해오던 각 사찰의 대다수 범종들이 약탈 혹은 소실되었을 것이며, 그것은 사찰의 필수적인 범종의 기능으로 볼 때 전란으로 사라진 범종을 조선 후기 들어 대대적으로 제작함으로써, 현존하는 조선 후기 범종의 현황이 조선 전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는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본다.

III. 朝鮮 前期 梵鐘의 發願과 製作

儒敎를 통치이념으로 출발한 조선왕조였지만 과거 오랜 기간 불교의 영향아래 형성된 승불의 전통은 15세기에도 꾸준히 유지되었다. 15세기 왕실발원 범종 또한 이러한 승불의 정서에 힘입은 사찰 건립과 중수 과정에서 제작될 수 있었다. 이는 이후 유교가 정착되어 승불의 경향이 약해져 간 조선시대의 상황에서 볼 때, 왕실이 범종 제작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마지막 시기로서 당시 범종에 대한 상징성 및 중앙양식 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범종의 제작에 있어서는 고려 말부터 발생한 금속재료 부족으로 여러 가지 시책이 강구되던 상황에서도 대량의 銅이 필요한 대형 범종의 제작이 이 시기에 이루어 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왕실의 전폭적인 지원을 짐작할 수 있다.⁴

이 시기 금속재료의 부족은 다량의 무기 제작 및 화폐유통, 금속활자의 제작 등으로 심화되었다. 당시 금속재료의 부족현상은 『고려사절요』, 『세종실록』 등에서 찾을 수 있다. 먼저 『고려사절요』의 내용을 보면 방사량이 올린 상소에서, “놋쇠와 구리는 본토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건이니, 지금부터는 구리놋쇠와 쇠그릇은 금지하고, 오로지 자기와 나무그릇만 사용하게 습속을 개혁하소서”⁵ 라고 한 내용이 있다. 또한 세종 6년의 기사에서는 화폐제작

⁴ 대형종이 많이 구성된 현상은 당시 日本에서도 비슷한데, 日本의 梵鐘은 奈良時代(710-784년)부터 대형종이 많다. <東大寺鐘>을 필두로 구경이 1m를 넘는 종이 전체 11구 가운데 7구이다. 平安時代(794-1185년)도 전기에는 여전히 평균보다 큰 종이 많지만, 10세기 전후에 급격히 소형화되어, 空白의 2세기에 돌입한다. 平安時代 후기에 제작 생산이 시작되자 당좌는 平安時代 전기와 같은 정도의 크기를 유지하지만, 차츰 구경 60cm 전후의 크기로 정착해간다. 鎌倉・南北朝時代(1192-1333년)에는 크기의 변화는 적다. 그런데 室町時代(1338-1573년)에 들어가면 꾸준히 거대한 종이 제작되지만 한국은 15세기 왕실발원 대형종 이후에는 대형종의 제작이 드물어 日本의 경우와는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杉山 洋, 「日本 梵鐘의 樣式的 特徵と變遷」, 『聖德大王神鐘綜合論考集』(국립경주박물관, 1999), p. 281. 참조.

⁵ 『高麗史節要』 卷35, 恭讓王 二, 辛未3年條, “中尉將房士良, 上時務十一事……五曰, 鑄銅, 本土不產之物也, 願自



도3 봉선사중(1469년) 명문 탁본(직지사성보박물관 편, 『한국의 범종 탁본전』)

에 따른 부족한 구리를, 관청의 금속기들을 수납하여 충당하였던 기록⁶으로 볼 때, 당시 금속재료 수급의 어려움을 엿볼 수가 있다.

15세기 왕실발원 범종의 발원과 제작에 대해서는 넓은 종신을 활용하여 새긴 銘文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도3). 명문에 등장하는 인물들 대부분이 왕실의 대군과 문무의 주요 관리들이며, 그 내용 또한 부처의 영험함과 공덕으로 왕실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것을 볼 때 왕실발원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범종의 명문을 지은 즉, 撰한 인물들은 한계희(韓繼禧 1423-1482), 김수온(金守溫 1410-1481), 강희맹(姜希孟 1424-1483) 등이다. 이들은 당시 비슷한 연배로서 유명한 문장가였으며, 동시에 2품 이상의 고위 관직자였다. 이들은 세조 연간(1455년-1468년)에 진행된 일련의 불사들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세 사람은 『금강경』, 『원각경』 등의 경전을 한글로 번역하였으며,⁷ 그 중 김수온은 천성이 불서를 좋아하여, 국가의 법

今, 禁銅鐵器, 專用瓷木, 以革習俗……”

⁶ 『世宗實錄』卷25, 世宗6年 8月 5日 丁未條, “戶曹啓: “將司贍寺已鑄錢四千五百七十八貫, 計用銅三萬五千七百六十五斤 以此例之則一萬貫所鑄銅七萬八千八百八十八斤 十萬貫所鑄銅七十八萬一千八百七十七斤……京外經師巫女業稅, 以銅差等收納 一, 歷代銅鐵散在民間者, 一皆收納 一, 煇錢爲銅者, 以盜鑄錢論” 從之.

⁷ 『世祖實錄』卷32, 世祖0年 2月 8日 辛卯條, “命工曹判書金守溫, 仁順府尹韓繼禧, 都承旨盧思慎等譯《金剛經》”, 『世祖實錄』卷35, 世祖1年 3月 9日 丙辰條, “孝寧大君補嘗譯校《圓覺經》……判書, 梁誠之知中樞院事, 姜希孟仁順府尹, 韓致仁佾知中樞院事, 吳疑可憲執義, 繼禧, 希孟以譯《圓覺經》功也.”

연에 반드시 참여하였다는 실록의 기록으로 보아, 당시 유학자로서 불교에 대한 이해가 깊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⁸ 특히 그의 형인 慧覺尊者 信眉는 일찍이 세조의 왕사로서, 낙산사, 봉선사, 유점사 등의 사찰 중수와 불경 간행 등의 왕실발원 불사에, 學悅, 學祖와 함께 주도적으로 참여한 인물이었다는 사실도 실록과 현존 유물을 통해 알 수 있다.⁹

조선 전기 왕실발원 범종의 명문을 글씨로 썼던 정난중(貞蘭宗 1433-1489)은 당시 창덕궁의 궁궐현판과 원각사비문을 썼으며, 특히 세조의 명에 의해 편찬된 『원각경언해본』¹⁰의 활자를 정난중의 서체로 했다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당시 최고의 서예가로 인정받은 인물임에 틀림없다.

범종의 명문을 보면 주조와 제작에 실질적 책임을 맡았던 것으로 짐작되는 金德生을 위주로 하여, 전체적인 문양과 디자인을 담당했을 畫員 崔涇, 李長孫,¹¹ 金仲敬, 李百連, 鄒刻匠으로 張金同 같은 장인들도 등장한다(표2). 이들은 명문을 통해서 여러 관직과 품계를 가진 실력이 우수한 국가 장인들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¹² 이 외에 금속의 합금과 용해 및 주

⁸ 『文宗實錄』卷1, 文宗卽位年 4月 11日 甲申條, “兵曹正郎金守溫, 僧信眉之弟也. 雖業儒中科第, 然性酷好佛書, 《楞嚴經》, 過於《中庸》” 人有問之者曰……” 김수온은 上院寺木造文殊童子像 服藏에서 成宗 3年(1472년)에 仁粹大妃에 의해 간행된 『六經合部』의 卷末에 跋文과 『上院寺重創事蹟』을 작성했음을 볼 때 당시 인수대비에 의해 간행된 많은 佛書들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리라 짐작되며, 이것은 김수온이 그의 형인 信眉의 영향과 함께 천성적으로 佛敎에 대한 애착과 이해가 깊었던 인물이라는 것을 아는 데 있어 중요한 자료이다.

⁹ 『世祖實錄』卷45, 世祖 14年 1月 23日 甲申條, “命兵曹, 給僧學祖驛騎, 往高城紉帖寺, 其帶去夫匠十五人, 亦給驛騎. 時, 僧信眉, 與其徒學悅, 學祖相結, 煽張威福, 勳賊土庶多附之. 悅造洛山寺, 祖修楸帖寺, 江原道爲之騷然. 監司, 守令莫能支梧, 乃以所得營置產業.” 信眉의 흔적을 현존하는 유물로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국보 292호로 지정된 <上院寺重創勸善文>이다. 이 교첩은 국왕의 어첩과 신료의 권선문 2책으로 작성되어 있다. 그 내용은 世祖의 王師인 慧覺尊者 信眉 등이 왕의 수복을 빌기 위하여 상원사의 중창을 발원하니, 이에 世祖가 체색, 쌀, 무명, 베를 하사한다는 취지를 밝힌 글이다. 한 책은 漢文의 原文으로만 되어 있는데 信眉 등이 쓴 글에는 信眉, 學悅, 學祖 등이 수결하고, 世祖가 쓴 글에는 世祖와 왕세자의 수결과 日記, 이어 孝寧大君 이하 여러 종실과 신하들의 이름과 수결이 보이고 있다. 다른 한 책은 권선문을 漢文으로 쓴 다음에 다시 한글로 번역한 것을 붙이고 뒤에 世祖와 세자의 수결과 日記, 왕비 및 세자빈 등의 日記가 있다. 이 문건의 작성 시기는 信眉 등의 권선문 끝에 ‘天順八年臘月十八日’이라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世祖 10年(1464년) 12월에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문서는 朝鮮朝의 王家에서 寺刹에 대하여 施主한 기록으로서 귀중한 자료이며, 당시의 왕실발원 佛事에 信眉, 學悅, 學祖 등의 활동상과 世祖 및 왕실과의 유대관계를 보여주는 실증적인 자료라 할 수 있다.

¹⁰ 상원사목조문수동자상 출토 『원각경언해본』은 세조 11년(1465년) 乙酉字本으로 제작되었으나 중종 15년(1484년) 甲辰字本(중국서체사용) 제작 때 이를 녹여 사용함으로써 사라지게 되어 희귀성을 띠며 귀중본으로 평가된다.

¹¹ 이장손은 日本 나라(奈良)의 야마토분카간(大和文化館)에 소장된 그의 화첩들로 보아 원대 고극공계의 미법산수 화풍을 토대로 삼고 있으며, 성종 5년(1474년) 동료화원 백중린과 함께 목판본인 『예념미타도량참법』의 과거칠불과 미래불의 도상을 그리기도 했다. 이러한 사례를 보아 이장손은 산수화와 불교인물화에 상당한 이해와 실력을 갖추고 있었음이 짐작된다. 안희준, 『한국 회화사 연구』(사공사, 2000), pp. 777-778. 참조

표2 15세기 왕실발원 범종 명문의 등장인물

	칸 (撰)	서 (書)	감역 (監役)	화원 (畫員)	조각장 (鑄刻匠)	각자 (刻字)	주성장 (鑄成匠)	주장 (注匠)	노야장 (爐台匠)	목수 (木手)	수철장 (水鐵匠)
興天寺鍾 (1462년)	한계희	정난중	김덕생	최경	양춘봉 장금동	김귀생 정춘발	정길산 이장수	이만	김봉충	지상 김우길	이득방 박천길 차영수
普信閣鍾 (1468년)			김덕생		양춘봉 장금동	김순생	정길산 이장수 이파회	이만	김봉충		강원기 김춘경 고타내
洛山寺鍾 (1469년)	김수은	정난중	김덕생	김중경 이장손	황효봉 장금동	정미 정상좌	정길산 이파회 오춘경 이명구지	이을부 장석경 김상좌 박수생	김봉충 박오을 미현득부	함모리	강원기 박산수 이달마 심문 김동 김춘경 고타내 박유생 강성민
奉先寺鍾 (1469년)	강희맹	정난중	김덕생	이백련 김중경	장금동 김플금	김순생 정춘발	정길산 이파회 이명구지 오춘경	이을부 장석경 박수생 김상좌	김봉충 박오을 미현득부	함모리 장관음노	강원기 이달마 김귀산 김춘경 박유생 강성민

조를 담당한 장인들도 4구의 범종에 공통적으로 등장함을 볼 때, 이 시기 국가 중심의 체계적인 장인 계층이 범종제작에 참여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15세기 왕실발원 범종들의 명문을 통해서 당시 범종의 제작이 사찰의 중수와 함께 왕실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관료 계층, 승려, 장인집단 등의 일률적인 참여로 이루어 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시기 대형의 왕실발원 범종 외에 소형 범종인 <봉은사종(1392년)>, <정통14년명종(正統14年-1449년)>, <수종사종(1469년)> 등이 현존한다. 이 종들의 발원 성격을 정확히 규정할 수 없지만 <수종사종(1469년)>의 경우는 수종사가 1459년에 세조에 의해 중창되었으며, 1493년 명빈 김씨 발원의 석가불상이 조성되었다는 점 등에서 왕실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었던 사찰로서 범종 또한 왕실발원 성격을 가지고 있으리라 본다. 따라서 15세기에는 왕실발원의 대형종과 더불어 개인 혹은 왕실의 소규모 발원의 소형종들 또한 다수 제작된

12 <奉先寺鍾銘>

“畫圓 朝奉大夫李百連宣教郎金仲敬鑄成匠鄭吉山李波廻李命仇知吳春敬開刻匠張金音同金物金……”

12 發願者階層을 통해 본 朝鮮前期 梵鍾의 樣式



도4 해인사흥차4년명종(1491년), 높이 84.8cm,
경남 합천군해인사



도5 유점사종(15세기 말), 높이 67cm,
국립춘천박물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에 그 발원성격을 왕실로 추정할 수 있는 <해인사흥차4년명종(1491년)>(도4)과 <유점사종(15세기 말)>(도5)이 있다. 이들은 그 규모가 이전의 대형종에 비해 축소되었으며, 종각에 걸어 사용하는 용도가 아닌 실내 장엄 혹은 의식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범종의 명문 또한 소략하여 정확한 내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분석이 힘든 상황이다. 다만 범종이 만들어질 당시 사찰의 중수가 왕실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사실과 범종의 양식으로 볼 때, 사찰 중수와 함께 만들어졌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특히 해인사는 전통적으로 <八萬大藏經板>을 소장한 범보사찰로서 조선시대 들어서도 왕실의 명으로 印經사업을 꾸준히 수행하던 사찰이다.¹³ 범종이 주성된 시기는 대규모의 인경 작업과 해인사 중창이 이루어지던 때이며,¹⁴ 덕종의 비인 인수왕비와 예종의 계비인 인혜왕비의 발원에 따라 대적광전과 기타 건물

¹³ 조선 전기 왕실 차원의 八萬大藏經의 印經 사업은 『定宗實錄』 卷1, 定宗 1年 1月 庚申 / 『太宗實錄』 卷25, 太宗 13年 3月 庚寅, 5月 丙午 / 『世祖實錄』 卷8, 世祖 3年 5月 丙午, 卷13, 世宗 4年 7月 壬子, 卷33, 世祖 10年 7月 丙辰 등의 기록에서 꾸준히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¹⁴ 『成宗實錄』 卷266 成宗 23年(1492년) 6月 13日 壬子條, “可憲府持平 閔頤 來啓曰: “殿下嘗言不崇信佛道, 而重



도6 광흥사종(1583년), 높이 60.5cm,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

들의 중수와 더불어 범종 또한 같이 주성되었을 것으로 짐작 할 수 있다.

16세기 들어 범종의 제작은 15세기 상황과는 달리 민간발원의 범종이 대다수를 이룬다. 이러한 변화는 조선의 정치체제가 1세기가 흐르는 동안 유교의 지배질서가 제도화되고 정착되는 시기와 맞물려 15세기와 같이 사찰의 대규모 중건 및 창건과 함께 이루어졌던 범종의 제작이 16세기 들어 위축되었음을 작품의 현황을 통해 알 수 있다. 특히 1584년 만들어진 <갑사종> 명문의 내용을 보면 하삼도 사찰의 범종을 병기를 만드는 데 수거해 사용했다는 것으로, 당시 지방 사찰의 범종들이 국가에 의해 수거되어 소실된 상황을 엿볼 수 있다.¹⁵ 따라서 이 시기 여러 인위적인 이유들로 소실된 범종들을 민간 혹은 사찰에서 다시 발원하여 봉안하였던 것이다. 16세기 범종의 명문들은 대체로 범종이 주

성된 해의 연호와 발원자 혹은 장인들 이름 정도의 간략한 기록만을 새기고 있어, 당시 발원자들은 지방 관리 혹은 승려들인 민간차원의 발원이란 사실을 알 수 있다(표3).

<광흥사종(1583년)>(도 6)의 경우, 匠人 金慈山이란 인물이 확인되며, <안정사종(1580년)>에서는 成堂, 眞玉 등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활동상에 대해서는 아직 관련 자료의 부족으로 접근하기 힘든 상황이다. <안정사종(1580년)>의 명문에서는 주조시기, 사찰명, 무게, 조성과 관련된 인명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담양의 '용천사종'으로 되어있지만 현재 담양에는 용천사가 없고, 그 터라고 전해지는 곳도 없다. 그래서 범종이 담양에서 지금의 통영까지 옮겨진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없다. 하지만 중종 33년(1538년) 담양의 용천사에서 간행된 『五大眞言集』과 1575년 간행된 『造像經』 등의 현존 유물들을 통

創 海印寺, 功役甚重, 糜費亦多, 今又修 興天寺, 至使官員董役, 臣等未見殿下不崇佛之實也……”

15 <甲寺鐘銘>

“時維萬曆十一年七月爲治北道夷狄之亂大起因以獨折下三道寺刹大鐘盡取納 國兵器大砲鑄銅失 是以頓無人皆嘆曰 不小大寺刹期暮爲 主上祝壽處時有無願即勸甲申夏己日公山東鷄龍山岬上大鐘新鑄成鐵入 千斤萬世流傳……”

표 3 16세기 민간발원 범종 명문

鍾銘文	
白蓮寺鍾 (1569년)	隆慶三年己巳四月日鑄鐘
安靜寺鍾 (1580년)	萬曆八年庚辰八月日全羅道潭陽府秋月山龍泉寺大鐘□□百餘斤/安勺先/朴春永/高千連/崔信/姜正太/洪非互非/金大云/全國連/宋若番/溫應伊/崔千/吳金浩/金次鋌/持音明悟/首僧天寶/持寺太田/畫成堂.眞玉.文幹
泰安寺鍾 (1581년)	天順元年三月日大鐘鑄馬破/又萬曆九年四月日大鐘改鑄次/金四百餘斤入鑄大鐘大施主□□比丘/伊養大施主□□□□/兩主□□納願修□施主/同正覺/
廣興寺鍾 (1583년)	萬曆十一年癸未四月初日/□□山□□寺一百四十斤/入大鐘十五斤入□鑄成記/□□廣□大主□□□/□□□□□□/大主□金兩主/大主崔□□施主□□□□/道雄僅月□□□□/先僅崑印□□□/匠金慈山□□/□□□□□□/別座士卯比丘/□□□□□□/惠□□/大化主□□比丘/(첨각)
甲寺鍾 (1584년)	時維萬曆十一年七月爲治北道夷狄之亂大起因以獨折下三道寺刹大鐘盡取納國兵器大炮鑄銅失是以願無人皆嘆日不小大寺刹期暮爲生上祝壽處時有無願即勒甲申夏己月日公山東鷄龍山岬士大鐘新鑄成鐵入/千斤萬世流傳/……

해 조선 전기까지 담양의 용천사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¹⁶

IV. 朝鮮 前期 梵鍾의 樣式 變遷

조선 전기 범종이 한국 梵鍾史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는 전통 한국 범종의 양식에서 中國鍾의 요소를 이 시기에 적극 수용하여 이후 제작되는 범종에 많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중국종 요소의 수용에 관해서는 범종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 전반에 있어 당시 중국의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元나라의 지배 기간(1275-1351년)은 과거 어느 시기보다 외래문화의 수용이 사회전반에 강하게 이루어졌던 시기였으며, 수탈과 억압 또한 가장 심했던 시기였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혼란은 장인세력의 기술력 저하를 초래하였을 것이다.¹⁷

¹⁶ 〈安靜寺鍾銘〉

“萬曆八年庚辰八月日全羅道潭陽府秋月山龍泉寺大鐘□□百餘斤
安勺先 朴春永 高千連 崔信 姜正太 洪非互非 金大云 全國連 宋若番 溫應伊 崔千 吳金浩 金次鋌 持音明悟 首僧天寶 持寺太田 畫成堂.眞玉.文幹”

¹⁷ 고려 말 공예분야가 침체되었던 상황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기록으로는 원나라에서 우리에게 여러 장인들을 보



도7 연복사종(1346년), 높이 324cm,
북한 개성시 남대문

범종에 있어서도 중국종 요소의 전래는 전통계승의 의미가 약화되는 고려 말에 대형 범종의 제작이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과 그러한 공백기동안 원나라 장인들이 고려에 와서 만든 개성 남대문의 <南福寺鐘(1346년)>(도7)과 같은 범종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이는 당시 3m가 넘는 대형종의 제작을 중국 장인들이 주도하였다 하더라도 고려의 장인들 또한 종의 제작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당시 원나라 왕실에 의해 발원된 많은 불사들을 통해서 이미 중국 작품에 대한 인식과 수용이 확대되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¹⁸

조선 개국 후에도 明나라 정치제도와 의례 및 규범의 수용 등을 통해 당시 중국 문화의 전래는 조선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따라서 15세기 왕실발원의 대규모 범종 제작에 있어 고려 말부터 진행된 중국 문화의 강한 자극이 중국종 요소의 수용에 큰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선 개국 후에도 明나라 정치제도와 의례 및 규범의 수용 등을 통해 당시 중국

이 시기 이러한 현상은 현재 日本 대마도에 있는 <엔쯔지종(圓通寺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종의 양식과 시기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외형과 여래상의 배치 등에서 1346년 개

내주길 요청하나 그에 대한 거절의 답변을 담은 「送撒里打官人書」라는 이규보의 서간이 그것이다. 이 내용 중에는 “.....우리나라에는 예로부터 장인들이 적어 모자라고 기근과 질병으로 많이 죽었으며, 또 귀국의 빈번한 침략으로 해를 당하여 그로 인해 흩어져버리거나 농민이 되는 등 전업을 한 자가 많은 고로 부득이 보낼 수 없다”고 하였다. 『東國李相國集』 卷28, 書·狀·表, 「送撒里打官人書」 및 『東文選』 卷61, 書, 同題目. “(前略) 又稱諸般工匠遭送事 我國工匠 自昔欠少 又因飢饉病變 亦多物故 加以貴國兵馬經由 大小城堡 以罹害被驅者不少 自此耗散而莫有地著專業者 故節次不得押遣應命.....” 崔應天, 「韓國梵鐘의 特性과 變遷」, 『성덕대왕신종 종합논고집』 (국립경주박물관 1999), pp. 201-203. 참조.

¹⁸ 金剛山에서 출토된 원나라 미술 양식을 반영하고 있는 2구의 금동보살좌상, 라마탑을 본뜬 마곡사탑의 건립과 라마탑형식의 사리기가 채용되고 금강저 금강령 같은 밀교법구 및 경상의 유행 등에서 볼 때 前代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외래 양식이 이 당시 유행했음을 반영하고 있다.



도8 봉선사종(1469년), 상부 용뉴 및 천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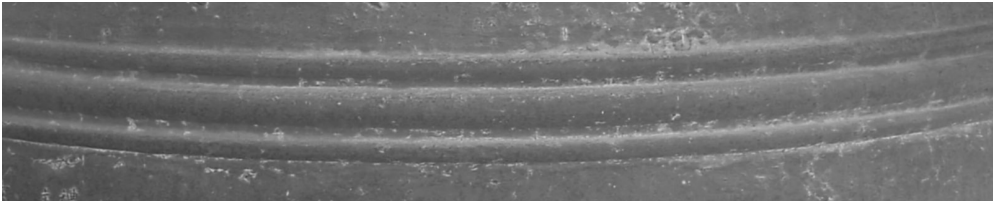
도9 法海寺鐘(明 1447년), 상부 용뉴 및 천판
中國北京大鐘寺古鐘博物館
(北京市文物事業管理局編, 『古鐘卷』圖28)

성 〈연복사종〉의 영향이 많이 보인다. 하지만 한국종의 특징인 구획을 나누지 않는 전통적인 여백의 추구하고 연곽과 당좌의 존재, 문양대의 표현에서 차이를 보인다. 또한 15세기 동일한 양식의 범종 사례가 없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14세기 말에서 15세기 초 원의 영향을 받은 우리 장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범종으로 추정된다.

15세기 왕실발원 대형 범종의 전체적인 형태는 전통적으로 鍾腹이 강조되던 항아리형에서 원통형에 가까워지고 있다. 특히 雙龍의 龍鈕가 처음으로 등장하고, 天板이 솟아올라 半球形으로 보이며, 천판과 종신의 연결 부위엔 上帶 대신에 蓮板紋의 肩帶 장식이 곡선으로 표현되어 종신 상단과 천판을 자연스럽게 장식하고 있다(도8). 종신의 문양은 넓은 종신에 적당한 여백을 유지하면서 상부엔 蓮廓과 梵字紋, 菩薩立像을 시문하고 下帶는 鍾口와 이격되어 과도문의 문양대를 두르고 있다.¹⁹

15세기 왕실발원 범종에서 중국종의 요소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바로 쌍용의 용뉴와 반구형의 천판 및 橫帶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당시 중국종은 그 형태의 다양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용뉴의 형태 또한 여러 가지 유형을 보이고 있다. 逆U字形으로 과도하게 몸체를 꺾은 형태가 많지만 다소 자세를 낮춘 모습의 용뉴도 있다(도9). 15세기 왕실발원 범종의 용뉴 표현은 다양한 중국종의 용뉴 중에서도 저자세로 천판에 붙은 모습의 용뉴를 표현하였

¹⁹ 15세기 왕실발원 범종에서 下帶가 鍾口에서 이격되어서 鍾口가 두텁게 조형되는 것은 전통적으로 종을 치는 부분인 撞槌가 생략되어 종을 타중할 때 鍾口部를 타격하여 소리를 내게 했기 때문에 종을 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현존하는 종들의 종구부에 타격한 흔적이 대부분 남아 있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도10 봉선사종(1469년), 종신 중앙3조선의 황대



도11 보신각종(1468년), 높이364.7cm,
국립중앙박물관



도12 낙산사종(1469년)-소실, 높이154cm,
강원도 양양군 낙산사

다. 이렇게 저자세의 사실적인 용뉴 표현은 다소 위압적으로 보이는 중국종과 달리 항상 낮게 걸린 종의 정면을 바라보게 되는 한국 범종의 특징에서, 시각적으로 차분한 느낌의 종신 표현을 추구했던 전통적인 경향을 작품에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종신 중앙을 두른 황대의 표현도 중국종의 요소이지만, 차이점은 불규칙적인 중국종의 황대에 비해 15세기 왕실발원 범종은 모두 3조선의 규칙성을 가지며 가운데 선이 유달리 굵게 표현되는 특징이 있다(도10). 실제 작품에서 이러한 표현은 다소 종구가 두껍게 구조되어 전체적으로 종구가 벌어져 보이는 것을 완화시키기 위해 종신 중앙을 황대로 두툼으로써 시각적인 분산을 막고 균형을 유지하려는 표현으로 보인다. 이것은 <홍천사종(1462년)>과 <보신각종(1468년)>(도11)에서,



도13 봉선사종(1469년), 높이 235.6cm,
경기도 남양주시 봉선사



도14 봉선사종(1469년), 범자문

종구가 다소 벌어져 보이지만, 이후 <낙산사종(1469년)>(도12)과 <봉선사종(1469년)>(도13)의 경우 종신이 원통형에 가깝고, 중앙 3조선의 횡대로 종복이 강조되는 모습은 중국종의 횡대를 자국화한 표현으로 보인다.

이 시기 범종의 모습이 중국종과 다르게 느껴지는 것은 앞서 언급한 용뉴와 횡대의 표현 외에도 범자문, 보살입상, 파도문 등의 종신 표면을 장엄하고 있는 세부 문양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미 한국 범종에서 범자문의 사용은 고려시대 13세기 범종에서부터 나타난다.²⁰

²⁰ 우리나라 종에서 梵字가 처음으로 나타나는 것은 고려시대 범종부터다. <오어사종(1216년)>에는 종신의 위패 내부에 작은 글씨로 육자대명진언을 새겼으며, 이외에 개인소장 <계미명종(1223년)>에는 당좌 내부에 범자를 한 자씩 양주 하였고, 국립부여박물관 소장 고흥출토 <무술명종(1238년)>의 연곽대에 작은 범자들을 시문한 예가 있으며, 개성 <연복사종(1346년)>에도 범자문 장식이 나타난다. 기존에 우리나라 범종에 범자문 장식이 처음 나타나는 예가 <정풍 2년명종(1158년)> 하대에 나타난 범자문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정풍 2년명종(1158년)>에서 보이는 별도로 독립된 입상화문대의 장식은 현재 북한에 있는 <대자사종(1192년)>에 와서야 볼 수 있는 장식이다. 따라서 독립된 입상화문대 장식은 12세기 말에서 13세기 초에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장식으로 <정풍 2년명종(1158년)>은 명문과 달리 전체적인 양식으로 볼 때 13세기 중엽 이후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崔應天 『靑魚寺의 佛敎工藝品』, 『聖寶』 2(2000), p. 56. 참조.

하지만 <낙산사종(1469년), <봉선사종(1469년)>의 경우에서처럼 완벽한 眞言의 모습으로 종신을 두르며, 주문양으로 등장한 것은 이 시기 범종에서 처음으로 등장한다고 할 수 있다(도14). 그 진언을 보면, ‘옴마니반메훴’이라 발음하는 六字眞言이 대표적이다. 고려 초 전래된 육자진언 신앙은 대중적인 진언집이 많이 간행되었던 조선시대 불교의 동향과 결합해 지속적으로 유행하였으며, 그러한 신앙의 표현으로 범종에 주문양으로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²¹ 이 육자진언은 관음보살의 진언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관음신앙의 실천 형태로서 육자진언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명종 15년(1560년)에 간행된 『諺解六字禪定』의 발문이 있다. 그 내용에서 관음보살의 육자진언 공덕은 광겁을 초월하며 한 번 염함으로써 모든 공덕을 얻을 수 있다는 것으로 육자진언이 곧 관음보살의 진언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²² 문양의 시문 방식에서도 중국종에서처럼 진언으로 종신을 가득 채우는 방식이 아니라 적당한 여백을 두고 섬세하게 표현하여 경건함을 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범자문과 더불어 주목되는 문양으로는 菩薩立像을 들 수 있다. 과거 통일신라시대에 소리에 대한 상징성을 강조하는 奏樂飛天像 고려시대 如來像 등의 인물상이 범종에 시문된 전통에서 15세기 범종에는 보살입상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보살입상의 등장은 이미 고려 후기 소종들에서 드물게 보이지만, 조선시대 들어 주된 인물상으로 표현되었다.

본고에서는 15세기 왕실발원 범종에서 보살입상의 등장은 넓은 종신의 공간을 채우는 기능과 함께 觀音菩薩을 형상화한 것으로 추정하고자 한다. 그것은 범종의 표면에 보살입상이 앞서 언급한 관음의 진언인 육자진언과 함께 시문되었다는 점과 당시 불교의 동향에서 관음신앙의 실천이 육자진언과 어울려 대중적으로 유행한 것에서 유추할 수 있다(도15). 보살상의 시문은 凹凹이 두드러지지 않는 얇은 선으로 묘사하여 중국 및 일본종에서 인물상의 표현 없이 종신 전체에 구획을 나누고 요철을 크게 하여 표면을 부각시키는 방식과는

²¹ 六字眞言의 傳來를 高麗 初로 보는 것은 육자진언을 설하고 있는 『大乘莊嚴寶王經』(이하 「보왕경」이라 함)의 전래 시기와 이시기를 전후로 한 高麗와 中國과의 교류 관계에서 추정한 것이다. 『寶王經』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는 현존 最古의 문헌은 <高麗大藏經>이다. <高麗大藏經>은 고종 13년(1236년)에 착수하여, 同 38年(1251년)에 완성하였기 때문에, 『寶王經』의 전래는 늦어도 1251년 이전에는 되었을 것이다. 또한 『寶王經』의 번역이 10세기 말에 되었으므로, 현종 원년(1010년)에 시작하여 전후 40여 년간에 걸쳐서 완성한 <고려초조장경>에 입장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고려초조장경>은 몽고난 때 소실되어서 현재 잔여본이 남아 있는데, 그 속에는 『寶王經』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일단 <고려초조장경>에 입장되지 않았다면, 그 시기는 빨라도 1050년 이후가 된다.

²² 『諺解六字禪定』의 跋 <명종 15년(1560년) 간행>
 “此觀世音菩薩之六字神呪功起曠劫功德勝可沙故 或念一知十者 或誦百證千者甚衆也 然此法門原本於東國未曾有也 (中略) 此三公等眞可謂善繼觀音佛之本願同開東國之人心目者矣”



도 15 낙산사종(1469년), 관음보살과 육자진언 탁본
(직지사정보박물관 편, 『한국의 범종 탁본전』)



도 16 낙산사종(1469년) 보살입상

차이가 있다. 이것은 15세기 왕실발원 범종들이 중국종의 요소를 수용하는 과정에서도 전통적으로 범종의 표면 장엄에 있어 적당한 여백을 중시하면서 범종의 소리에 영향을 주는 표면 장엄에도 요철을 두드러지게 하지 않는 전통방식을 계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도 16).²³

다음으로 범종 하대를 장식한 파도문이 있다. 과거 범종의 하대 문양 장식은 주로 연화당초문 혹은 보상당초문 등의 花紋이 주를 이루었지만, 이 시기에 들어 파도를 형상화한 문양이 주로 시문된다. 이러한 물결문양의 사례는 통일신라시대 日本〈조구진자(常宮神軸) 소장 연지사종(833년)〉과 고려시대 〈김위상 종(12세기)〉 등에서 찾을 수 있으며, 15세기 범종에서 종신의 하대를 두르면서 더욱 선명하게 표현된다.²⁴ 〈낙산사종(1469년)〉과 〈봉선사

²³ 조선시대 범종에서 보살상의 변화는 15세기 왕실발원 범종의 경우 보살은 상반신과 팔꿈치 등이 보이는 의습을 갖추고 있으며 연화좌 위에 서있다. 하지만 이후 범종에서는 상반신 등이 완전히 천의로 가려지고 두광 또한 이중원권으로 표현되며, 연화좌 대신 구름 위에서 있는 범종의 보살상도 많이 등장한다. 하지만 그 표현력에 있어서는 왕실발원의 범종 보살상들의 격이 이후 범종의 보살상들 보다 높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²⁴ 15세기 왕실발원 범종의 파도문 등장 이전에 전통적으로 이미 파도문과 유사한 문양의 시문이 統一新羅 日本 常宮神社 所藏 〈蓬池寺銘鐘(833년)〉의 上·下帶에 등장하고 있다. 高麗時代에는 鎭山市立(博) 〈金胃祥鐘(12세기)〉, 〈東國大(博) No. 394鐘(14세기)〉 등에서 파도의 형태를 시문하고 있다. 또한 日本 〈圓通寺鐘(14세기 말-



도17 낙산사종(1469년), 파도문(위),
해인사흥취4년명종(1491년), 파도문(아래)

종(1469년)의 파도문은 구름모양과도 유사하지만, 이 후 만들어진 <해인사흥취4년명종(1491년)>의 사실적인 파도문을 볼 때, 파도 즉 바다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도17).

앞서 살핀 육자진언 및 관음보살상과 더불어 파도문, 즉 바다라는 상징성 또한 관음신앙과 연관성이 깊은 모티프라 할 수 있다. 특히 조선시대에도 꾸준히 간행되고 충분히 대중적으로 유행한 경전인 『묘법연화경』에서 관음의 공덕을 바다에 비유한 내용을 통해 관음신앙에 있어 바다와의 깊은 연관성을 이해할 수 있다.²⁵

앞서 언급한 대형 범종 외에, 15세기 소형종들인 <봉은사종(1392년)>, <정통14년명종(1449년)>, <수종사종(1469년)>에서는 전통적인 종신의 형태와 연곽과 당좌 및 立狀花紋帶의 모습을 살필 수 있어 중국종 양식의 수용과 정에서도 전통종의 모습을 추구하는 범종의 제작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15세기 말에 해당하는 범종으로 <해인사흥취4년명종(1491년)>과 <유점사종(15세기 말)>(도4, 5 참조)²⁶이 있다. 이 두 작품에서 주목되는 점은 바로 독특한 문양 장식에 있다. 특

15세기 초)의 하대 장식에도 파도문의 표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파도문의 등장이나 14-15세기 중국의 元·明代 鐘에서 처음 나타나는 水波紋의 수용으로 보는 관점보다는 통일신라와 고려시대 범종의 선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전통적으로 내려온 문양의 요소로서 조선시대 범종에 와서 중국종과 달리 더욱 선명하고 사실적으로 시문되는 전통 계승의 관점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²⁵ 『妙法蓮華經』 <觀世音菩薩普門品> 第二十五.

“世尊妙相具 我今重問彼 佛子何因緣 名爲觀世音 具足妙相尊 偈答無盡意 汝聽觀音行 善應諸方所 弘誓深如海 歷劫不思議 侍多千億佛 發大清淨願 我爲汝略說 聞名及見身 心念不空過 能滅諸有苦。” “妙音觀世音 梵音海潮音 勝彼世間音 是故須常念 念念勿生疑 觀世音淨聖 於苦惱死厄 能爲作依歸 具一切功德 慈眼視衆生 福聚海無量 是故應頂禮”

²⁶ <유점사종>을 15세기 말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범자문의 시문방식이 15세기 왕실발원 범종과 유사하며 종신의 형태와 용뉴 및 왕실을 상징하는 五爪龍을 표현한 용문양 또한 <해인사흥취4년명종(1491년)>의 표현과 흡사한 점에서 이해된다. 또한 16세기 비슷한 양식의 작품이 없는 것으로 볼 때 15세기 말 왕실발원의 전각 내 의식 혹은 불전 장엄용으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히 <해인사홍치4년명종(1491년)>의 경우 종신 전체를 구획을 나누어 화려한 문양들로 장식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종각에 걸려 사용한 대형 종들과 달리 전각 내 의식용 혹은 장엄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사료된다.

전체적인 종신은 원통형에 가까우며, 쌍용의 용뉴 표현은 앞선 종들보다 섬세하진 못하지만, 여전히 저자세로 천판을 감싸는 듯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연곽과 보살상의 표현은 전통범종의 요소를 간직하고 있으며 중앙의 황대 또한 3조선으로 가운데 선이 굵게 표현되어 중박을 강조하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문양의 구성은 연곽 아래에서부터 단을 나누어 보상당초문, 운룡문, 파도문, 팔괘문의 문양대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화려한 장식을 가진 범종의 예는 당시 明의 성화 연간(成化年間 1464-1487년) 범종에서 그 사례들을 찾을 수 있다(도 18). 그 양식의 전래에 대한 정확한 경로는 알 수 없지만, 조선개국부터 진행된 명과의 교류와 <해인사홍치4년명종(1491년)>이 왕실의 지원을 받아 중창되던 시기에 만들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앙에 유입된 중국종의 인식이 당시 범종을 제작한 장인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존의 다른 공예품에서는 많이 표현되었지만 범종의 문양으로 사용되지 않았던 용문양을 처음으로 표현하여 주목된다. 구름 속을 나는 4마리의 용을 역동적인 모습으로 종신을 둘러 표현하였다. 중국종에서는 문양대 내부를 용과 함께 많은 장식 모티프를 채워 넣어 다소 짝 찬 느낌의 문양대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해인사홍치4년명종(1491년)>의 경우 문양대 내에 용을 시문하면서도 구름과 여의주 같은 간략한 모티프만 시문하여 적당한 여백을 두는 것으로 표현의 차이가 느껴진다.

15세기 말 <해인사홍치4년명종(1491년)>의 공간충전적인 문양의 구성이나 <유점사종(15세기 말)>의 상징적인 문양만으로 종신을 장엄한 범종의 사례는 드물다. 하지만 용문양과 범자문 등의 요소들이 조선 후기 범종에서 계속 등장함을 볼 때, 이후 범종에 지속적으로



도 18 鑄金銅鐘(明 15세기 후반),
높이 45.9cm,
中國北京大鐘寺古鐘博物館(北京市
文物事業管理局編, 『古鐘卷』圖⁸⁰)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종합해 보면 15세기 왕실발원 범종의 가장 큰 특징은 외형상 처음으로 중국종 요소를 수용하였지만, 전체적인 조형과 문양의 시문방식은 중국과는 다른 전통 한국 범종의 미감의 선상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는 새로운 요소의 수용과 전통의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15세기 한국 범종의 새로운 양식의 정립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16세기 민간발원 범종에서 주목되는 점은 중국종 요소로 대표되는 쌍용의 용뉴와 전통 한국종의 특징인 단룡의 용뉴를 가진 범종들이 함께 등장 한다는 것이다. 또한 15세기 왕실발원 범종과 달리 연곽과 당좌 및 입상화문대의 표현과 중복을 강조하는 향아리형 종신 등 전통 범종의 모습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16세기 범종에서의 복고적인 경향은 중앙에 비해 지방 장인들에게 중국종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지 못한 점에 있다. 따라서 기존에 지방 각 사찰에 봉안되어 오던 통일신라 혹은 고려시대 중소형의 종을 모본으로 하여 소실된 범종을 다시 제작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하지만 이미 과거와 똑같은 종이 아닌 쌍용의 용뉴 및 범자문과 보살입상 등의 표현으로 15세기 새로운 범종의 요소들이 16세기에 계승되어 제작되었다는 것을 작품들을 통해 알 수 있다.

〈태안사종(1581년)〉, 〈광흥사종(1583년)〉, 〈화암사종(16세기 말)〉의 경우처럼 단룡으로 표현한 범종들은 모두 음통을 갖추고 있다. 용뉴는 고려시대 범종의 용뉴 모습과 흡사하고 천판 둘레를 고려시대 범종의 특징인 입상화문대로 장식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기존의 고려 범종을 모본으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종신에도 연곽과 당좌의 표현으로 전통 범종의 양식을 따르지만 상대의 연판문 장식과 범자문대 그리고 〈갑사종(1584년)〉과 〈화암사종(16세기 말)〉의 경우처럼 보살입상의 표현은 15세기 왕실발원 범종의 영향으로 보인다.

16세기 범종에서 종신의 인물상은 〈갑사종(1584년)〉과 〈화암사종(16세기 말)〉에서, 15세기 범종에서처럼 관음보살의 형상이 아닌 지장보살로 묘사된 것도 특징적이다. 이는 조선시대 불교의 동향에서 대중적인 불교신앙이 유행하였으며, 앞서 언급한 관음신앙과 함께 내세에 대한 구복의 의미가 강한 지장신앙 또한 많은 신앙층을 형성했음을 고려해 볼 때, 범종을 주성하는 데 있어 당시 발원자들의 다양한 신앙적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 판단된다.

16세기 범종의 범자문은 15세기 범종에서 완전한 육자진언의 시문이 변화되어, 圓圈 안에 단순한 디자인으로 상징화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전통 한국 범종의 모습을 추구하면서 이미 대중화 되어있던 진언신앙을 종신의 전체 미감을 헤치지 않는 범위에서 하나의 문양대를 구성하여 간략화시킨 것으로 이해되며 이러한 양상은 다른 불교 공예품의 범자문 장식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도19 갑사종(1584년), 높이 128.5cm,
충남 공주시 갑사



도20 안정사종(1580년), 높이 115.8cm,
경남통영시 안정사

16세기 범종의 전형을 가장 잘 간직하고 있으며, 그 작품성에 있어서도 대표적인 성격을 가지는 범종이 바로 <갑사종(1584년)>(도19)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갑사종(1584년)>의 조형에서, 중국종의 요소와 전통 한국종의 요소, 그리고 15세기 새롭게 등장한 요소들이 가장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을 살필 수 있기 때문이다.

<갑사종(1584년)>은 전통적인 향아리형 종신에 圓弧形의 천판을 갖추었다. 그리고 입상 화문대 장식, 연곽과 당좌의 표현도 전통양식을 보인다. 하지만 용뉴의 표현에서는 중국종의 요소인 쌍용의 형식을 보이는데, 종신을 감싸는 듯한 자세로서 안정감을 더하는 것과 섬세한 표현 등은 기존의 용뉴에 비해 독창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종신 전체의 조형에 있어서는 <갑사종(1584년)>보다 4년 전에 만들어진 <안정사종(1580년)>(도 20)과 비교해 보면, <안정사종(1580년)>은 중국적인 半球形의 천판위에 전통적인 단룡의 용뉴와 음통을 길게 조형하여, 다소 종 전체 비례에 있어 상부가 솟아올라 보인다. 이는 한국 전통종에서 느낄 수 있었던 안정된 종신과 비교해 다소 불안정한 모습이다. 하지만 <갑사종(1584년)>에서는 전통적인 원호형의 천판위에 상승감을 줄여주는 쌍용뉴를 표현하였으며 향아리형 종신에 연곽과 당좌, 지장보살상, 범자문대, 연화당초문을 전통 한국 범종의 미감으로 균형 있게

배치함으로써 전체적인 안정감과 조형성에 있어 완성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15세기 왕실발원 범종을 중심으로 진행된 중국종 요소의 수용이 16세기 범종에도 영향을 주지만 전통 범종에 대한 미감은 꾸준히 추구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15-16세기 전통의 선상에서 이루어진 범종의 자국화 경향은 조선 후기 범종에서도 꾸준히 전개됨을 볼 때 한국 범종사의 양식 규명에 중요한 의미를 제시해준다.

V.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이 시기 중국종 요소의 수용에 대해 형식적인 면만을 다루었던 점에서 좀더 세부적인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양식규명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15세기 왕실발원 범종은 시각적으로 중국종의 과장되고 위압적인 모습과는 달리 균형감 있게 안정적으로 표현되었으며, 당시 유행한 관음신앙의 실천형태로서 육자진언과 관음보살입상, 파도문 등을 문양의 모티프로 표현했음을 알 수 있었다. 문양의 시문에 있어서도 뾰뾰이 두드러지지 않는 전통 한국 범종의 표현 방식을 추구하여 중국종의 요소를 수용함에도 중국종과 다른 조형성을 보이는 원인에 대해 새롭게 밝힐 수 있었다. 이후 16세기 민간발원 범종들이 전통범종의 형태를 추구하면서도 중국종의 요소와 15세기 새롭게 등장한 요소들을 어떻게 계승되어 표현되었는가에 대해 살폈다. 이를 통해 기존에 15세기를 한중혼합양식의 시기, 16세기를 복고적인 양식의 시기로 규정하던 다소 분리된 시각에서 벗어나 발원계층의 차이에서 오는 크기나 작품의 격에는 차이가 나지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전통 한국 범종의 미감은 꾸준히 작품에서 추구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15-16세기 범종의 분석을 통해 17-18세기의 僧匠係 및 私匠係 장인들의 활발한 주종활동으로 제작된 많은 수의 조선 후기 범종의 양식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연결고리를 제시했다는 점에 본 연구의 의의를 두고 싶다.

* 주제어(key words) __ 왕실발원(royal house-sponsored bell projects), 민간발원(privately-sponsored bell projects), 범종(Buddhist temple bells), 용뉴(yongnyu dragon-shaped bell loop), 범자문(Sanskrit inscription), 횡대(haengdae: horizontal bell-suspender bar), 관음보살(Avalokiteśvara, Gwaneum), 파도문(wave designs)

■ 투고일 2009년 2월 27일 | 심사개시일 2009년 3월 31일 | 심사완료일 2009년 4월 17일 ■

참고문헌

〈史料·經典〉

- 『高麗史』
『朝鮮王朝實錄』
『東文選』
『宣化奉使高麗圖經』
『新增東國輿地勝覽』
『妙法蓮華經』
『大乘莊嚴寶王經』
『佛說海龍王經』
『大方便佛報恩經』
『觀無量壽經』

〈單行本〉

- 金禮夷, 『增補韓國梵鐘目錄』, 韓國梵鐘研究會, 1994.
朴相國, 『全國寺刹所藏本板集』, 文化財管理局, 1987.
佛教文化研究所編, 『韓國佛教撰述文獻總錄』, 東國大學校出版部, 1976.
安輝燾, 『한국 회화사 연구』, 시공사, 2000.
廉永夏, 『韓國의 鍾』, 서울대학교출판부, 1991.
張忠植, 『韓國의 佛教美術』, 민족사, 1997.
直指寺聖寶博物館編, 『韓國의 梵鐘 拓本展』, 직지사정보박물관, 2003.
崔應天外, 『금속공예』, 술, 2004.
韓治勳, 『儒教政治와 佛教 麗末鮮初 對佛教施策』, 금영문화사, 1993.
黃沅根, 『韓國紋樣史』, 悅話堂, 1994.
洪閔植, 『韓國佛敎史의 研究』, 교문사, 1988.
大鍾寺古鍾博物館編, 『鍾林』, 長征出版發行, 1987.
大鍾寺古鍾博物館編, 『古刹梵鍾』, 中國科技出版社, 1998.
北京市文物事業管理局編, 『古鍾卷』, 北京出版社, 2000.

夏明明編,『大鍾寺』,北京旅游出版社,1987.

坪井良平,『朝鮮鍾』,角川書店,1974.

_____,『日本の梵鍾』,角川書店,1979.

_____,『梵鍾の研究』,ビジネス教育出版社,1991.

論文

安貴淑,「朝鮮 後期梵鍾의 研究」,『梵鍾』6, 한국법종연구회, 1983, pp. 69-93.

_____,「朝鮮 後期 鑄鍾匠 思曰比丘에 관한 研究」,『佛敎美術』9, 동국대학교 박물관, 1988, pp. 128-182.

廉永夏,「韓國 梵鍾에 관한 研究(朝鮮梵鍾의 特徵)」,『梵鍾』11, 한국법종연구회, 1988, pp. 17-95.

李浩官,「朝鮮王朝時代梵鍾」,『考古美術』138・139, 한국미술학회, 1978, pp. 70-77.

李光培,「朝鮮 前期(15-16세기) 梵鍾 研究」, 동국대학교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4.

周貞美,「朝鮮 前半期 金屬工藝의 對中交涉」,『朝鮮 前半期 美術의 對外交渉』, 예경, 2006, pp. 243-273.

_____,「朝鮮 前期 王室發願鐘의 研究」,『東洋學』42,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007, pp. 221-241.

鄭永鎭,「朝鮮 前期梵鍾考」,『東洋學』1,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71, pp. 135-188.

_____,「對馬島 圓通寺의 梵鍾」,『梵鍾』10, 한국법종연구회, 1987, pp. 21-31.

崔應天,「東文選과 高麗時代의 工藝」,『講座美術史』1, 한국미술사연구소, 1989, pp. 155-169.

_____,「朝鮮時代 雲版에 대한 考察」,『美術資料』50, 국립중앙박물관, 1992, pp. 84-106.

_____,「日本에 있는 韓國梵鍾 特히 九州地方의 梵鍾을 중심으로」,『講座美術史』4, 한국미술사연구소, 1992, pp. 139-153.

_____,「鑄金匠金愛立의 生涯와 作品」,『美術史學誌』1, 한국고고미술연구소, 1993, pp. 207-217.

_____,「麗末鮮初의 金屬工藝」,『高麗末 朝鮮初의 美術』, 국립전주박물관, 1996, pp. 103-114.

_____,「18세기 梵鍾의 樣相과 鑄鍾匠 金成元의 作品」,『美術史學誌』2, 한국고고미술연구소, 1997, pp. 215-239.

_____,「韓國 梵鍾의 特性과 變遷」,『聖德大王神鍾綜合論考集』, 국립경주박물관, 1999, pp. 176-217.

_____,「吾魚寺의 佛敎工藝品」,『정보』2, 대한불교조계종 정보보존위원회, 2000, pp. 71-84.

_____,「高麗時代 金屬工藝의 匠人」,『美術史學研究』241, 한국미술학회, 2004, pp. 171-191.

_____,「高麗後期 金屬工藝」,『講座美術史』22, 한국미술사연구소, 2004, pp. 125-154.

_____,「日本에 있는 韓國 梵鍾의 綜合的 考察」,『동악미술사학』8, 동악미술학회, 2007, pp. 59-102.

洪思俊,「朝鮮初葉의 鍾形과 銘文」,『考古美術』138・139, 한국미술학회, 1978, pp. 77-95.

杉山洋,「琉球鐘」,『佛敎藝術』237, 佛敎藝術學會, 1998, pp. 98-115.

- _____, 「日本梵鐘の様式的特徴と變遷」, 『聖德大王神鐘綜合論考集』, 국립경주박물관, 1999, pp. 257-315.
- _____, 「東アジアの梵鐘」, 『韓國의 梵鐘 拓本展』, 직지사정보박물관, 2003, pp. 256-275.
- 孫機, 「中國梵鐘」, 『聖德大王神鐘綜合論考集』, 국립경주박물관, 1999, pp. 234-256.
- 坪井良平, 「九州の朝鮮鐘」, 『佛教美術』76, 1970, pp. 126-132.
- _____, 「日本にある朝鮮鐘」, 『朝鮮文化』15, 1975, pp. 255-267.
- 濱田耕策, 「朝鮮鐘研究の諸問題」, 『梵鐘』6, 1997, pp. 1-4.

조선 전기 범종의 현황에서 15세기에는 왕실발원 범종이 많은데 이는 당시 많은 왕실발원의 증창 혹은 개창 불사와 동시에 범종이 제작된 것에 기인한다. 16세기 범종의 발원자 계층은 민간이 주를 이루는데 이미 16세기에는 유교적 지배 질서가 고착화된 상황에서 범종의 제작에 왕실이 전면에서 발원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15세기 왕실발원 범종은 중국범종의 요소를 수용하는데, 그 원인을 元의 영향, 장인세력의 약화, 明과의 교섭관계 등에서 살폈다. 특히 15세기 왕실발원 범종은 왕실, 관료, 승려, 장인집단 등이 체계적으로 참여하였음을 명문과 사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범종의 조형에도 관음신앙의 유행을 반영하고 있음을 육자진언, 관음보살상, 명문 등을 통하여 밝혔다.

16세기 민간발원의 범종은 15세기 왕실발원 범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약한 장인세력, 경제적 지원 등으로 인하여 증소형의 작은 크기이다. 이 시기 범종은 기본적으로 전통 범종의 양식을 따르면서 15세기 수용된 중국종의 요소도 보이는데, 그 외래 요소의 자극화 경향 역시 뚜렷이 엿볼 수 있다. 또한 16세기 범종은 15세기 범종과는 규모면에서 차이는 나지만 조형성에서는 한국종의 전통적인 미감에 꾸준히 접근하려는 표현의지는 동일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15세기 왕실발원 범종은 시각적으로 중국종의 과장되고 위압적인 모습과는 달리 균형감 있게 안정적으로 표현되었으며, 당시 유행한 관음신앙의 실천형태로서 육자진언과 관음보살입상, 파도 문 등을 문양의 모티프로 표현했다. 문양의 시문에 있어서도 뾰뾰이 두드러지지 않는 전통 한국 범종의 표현 방식을 추구하여, 중국종의 요소를 수용함에도 중국종과 다른 조형성을 보이는 원인에 대해 새롭게 밝힐 수 있었다.

이 후 16세기 민간발원 범종들에서도 전통범종의 형태를 추구하면서도 중국종의 요소와 15세기 새롭게 등장한 문양들을 전통의 선상에서 표현하려는 조형의지는 꾸준히 유지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기존에 조선 전기 범종에서 15세기를 한중혼합양식의 시기, 16세기를 복고적인 양식의 시기로 규정하던 다소 분리된 시각에서 벗어나 하나의 연결 선상에서 양식을 이해하는 관점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15-16세기 범종의 양식 변천 고찰을 통해 17-18세기의 僧匠係 및 私匠係 장인들의 활발한 주중활동으로 제작된 많은 수의 조선 후기 범종의 양식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연결고리를 제시했다는 점에 본 연구의 의의를 두고 싶다.

Abstract

Buddhist Temple Bells of Early Joseon:
A Comparative Study According to Financing Sources

Lee Gwangbae*

During 15th century Joseon, Buddhist temple bells were cast mostly under projects sponsored by the royal household. In the early years of this dynasty, the royal house was actively involved in the restoration of ancient Buddhist edifices, and many of the temple bells from this period were made as part of these projects. However, once into the 16th century, during which Joseon embraced the Confucian social order, its rulers ceased to be the patrons of Buddhism, this role being now passed on to the populace.

Buddhist temple bells from the 15th century exhibit a strong Chinese influence. The cultural sway of the Yuan Dynasty still unabated, Joseon had a relationship of live exchange with the Ming around this time. The weakening of the local industrial base also played a role in this phenomenon. According to information found on the body of the bell and other sources, royal house-financed temple bell projects from this period enlisted the help of various stakeholders, ranging from members of the royal family and government officials to monks and artisans. These bells echo the cult of Avalokiteśvara (Gwaneum or Guanyin), popular around this time. The six-character dharani and images of Avalokiteśvara are frequently found sculpted on their surface, along with other inscriptions

* Senior Research Fellow, Dongguk University Museum

making reference to the same Buddhist goddess.

Privately-financed temple bells from the 16th century, meanwhile, are smaller in size than those from the preceding century, cast from generous royal funding. This was also a result of the continuous decline, as an industry, of casting arts and crafts. Temple bells from this period manifest stronger native stylistic elements, as the Chinese influence from the 15th century gradually became integrated with local aesthetics. Although more modest in scale than those produced in the previous century, 16th-century Joseon temple bells are artistically more interesting, being faithful reflections of the Korean tradition.

Compared to their Chinese counterparts, 15th-century Joseon temple bells are more balanced and harmonious, conveying less of the exaggerated and massive impression that characterizes the latter. The surface, bearing the inscription of the six-character dharani, is frequently decorated with images of Avalokiteśvara and wave designs. True to the Korean temple bell tradition, surface designs are most often only slightly embossed. These local characteristics, therefore, existed side-by-side with Chinese-influenced elements, giving them a unique native stamp to 15th-century Joseon bells.

Privately-financed temple bells from the subsequent century show attempts to marry Chinese-imported elements and new ornamental motifs introduced during the 15th century with the older stylistic heritage of Korea. This study challenges the previous view in which the 15th century is considered a stylistically hybrid period, blending the Korean and Chinese styles, and the 16th century, a throwback period harking back to an older style. It presents arguments why these two periods should rather be understood as two chapters of Korean bell-making, linked by an uninterrupted continuity. The new light this study sheds on the stylistic evolution of Buddhist temple bells of the 15th-16th centuries also offers a fresh perspective on their successors from the 17th-18th centuries, which was a vibrant period of Korean bell-making, thanks to prolific production by both monks and lay artisans.